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사도들의 모후 Cu.	8월 11일(일) 12:00	강당
우리어머니 Cu.	8월 11일(일) 11:40	식당
올드레아	8월 18일(화) 10:30	강당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시간

8/14(수)	19:00 (특전)
8/15(목)	06:30, 10:30, 19:00

※ 대축일 봉헌금 있습니다

● 청년 여름캠프

- 일시 : 8월 31일(토) ~ 9월 01일(일), 1박 2일
- 장소 : 안산시 대부도
- 참가신청기간 : 7월 14일(일)~ 8월 18일(일)
- 비용 : 1인 3만원
- 입금계좌 : 카카오�뱅크 3333-1297-19040(신연미)
- 문의 : 최소현 로사(연합회회장 010-5735-5140)

● 구로3동성당 여름이야기

무더운 여름, 시원한 여름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릅니다."

- 첫번째! 음식나눔 (시원한 냉모밀)
 - 일시 : 8월18일 일요일 교중미사 후 식당
 - 두번째! 영화나눔 (오두막)
 - 일시 : 8월23일 금요일 저녁미사 후 대성전
 - 세번째! 음악나눔 (음악피정과 미사)
 - 일시 : 9월7일 토요일 오후6시 대성전
- * 음악피정 시작 토요일특전미사(7시)로 마무리

● 보스코 성가대 단원 모집

- 연습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8시(피정실)
- 미사시간 :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교중)
- 모집대상 : 30~50대 구로3동성당 교우
- 신청방법 : 김종석 스테파노(010-2069-0014)

● 수험생을 위한 가족 미사

- 일시 : 8월 24일(토), 오후8시(특전미사)
- 장소 : 소성전

● 알림

- 8월 18일(일) 중고등부 미사(오전10시)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가족들과 대성전 미사에 참석 바랍니다.
- 8월 21일(수) 11시 소성전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 전입교우 환영합니다.

구역반	성명	세례명	이전 본당
02구역2반	주인석	요안나구네군다	서울대교구/연희동
06구역1반	강보영	효주아네스	인천교구/간석4동
06구역1반	안진형	요한	서울대교구/상도동
14구역2반	윤성원	요셉	서울대교구/목3동

● 다음 주일(8/18) 청소 담당 : 21구역

● 우리들의 정성(7월 31일 ~ 8월 06일)

교무금	8,770,000원
주일헌금	5,109,500원
감사헌금	박영숙 5만원 김덕기10만원 구상호10만원 김종성10만원 김하린10만원 정봉순 5만원 신종구 5만원 박경희10만원 이은용10만원 이영숙 1만원 김OO 5만원 익명 5만원 익명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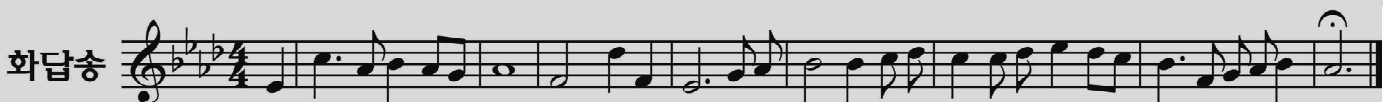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8/11	박혜선	조홍환	도현만
8/18	백희자	오성환	신종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8/11	박승환	박용환	박형순	손상민
8/18	이운영	이화봉	장인홍	최석준

성가번호 ♪ 입당 : 440 ♪ 예물준비 : 510, 512 ♪ 영성체 : 166, 496 ♪ 파견 : 31



주님 이얼마나 좋으신 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맛보고 깨달아라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새 ‘미사 전례서 총지침(2002년)’ 에 따른 간주린 미사 전례 지침

<성서 봉독>에서도, 보통보다 한 단계 높고 배에서부터 나오는 목소리로 새 삶의 기쁜 소식을 “선포” 해야 한다. 선포는 선포이다. 그냥 얇전히 읽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기쁜 소식, 새 삶의 복음을 큰 소리로 알리는 것이다. 성서를 봉독하는 사람은 그만큼 여러 번 읽어서 충분히 준비한 다음 천천히, 의미를 정확히 살려서 전달할 수 있도록 잘 훈련을 받아야 한다. 본래는 독서직을 받은 사람만 전례 중에 성서를 봉독할 수 있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평신도에게 개방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한 훈련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어문 교육이 주로 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말하기 훈련을 대단히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하면, 성서 봉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 점을 명심하여 책임자를 선택하고, 선택된 사람을 잘 준비시켜야 한다.

<성가>도 공의회 방침에 따라, 모든 신자가 함께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택하며, 한번 선택한 노래는 자주 바꾸지 말고,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불러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4. 물질 생활이 많이 풍요해진 오늘날,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나 사람들이 영적 갈증을 더욱더 느끼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전례를 통하여 전달되는 부활의 기쁨을 한껏 살려 낼 수 있다면, 미사야말로 우리와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깨끗이 해소해 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 줄 “야곱의 우물”(요한, 4장)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미사 전례가 더욱 적절히 거행될 수 있도록 요한 바오로 2세의 지시로 경신성사성에서 2002년에 개정해서 펴낸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 MISSALIS)의 내용 가운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추려 「간주린 미사 전례 지침」을 펴내게 되었다. 이 지침에 실린 내용들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전례위원회가 마음대로 만들어 낸 것도 아니다. 또한 이 간략한 지침이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다만 미사 전례를 거행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지침을, 관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의 취지를 살려 우리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히 당신의 복된 수난과 저승에서 살아나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의 파스카 신비,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없애시고 부활로 생명을 되찾아 주신’ 그 신비”(전례 헌장, 5항)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신앙인들의 정신 속에 되살려 내는 일에 이 지침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4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장 이병호 주교